

일반논문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 유형과
대북 NGO 특성
장소심리학적 접근*

A Study on the Korean-American's Sense of Place Type and Characteristic
of NGO's for North Korea: Place-Based Psychological Approach

오인혜**

본 연구는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재미교포가 형성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유형화하고 대북 태도 및 활동과의 연계를 밝히고자 했다. 재미교포들은 평양종합병원, 평양과학기술대학 등을 설립하는데 기여했으며 인권 운동과 더불어 미국 의회에 탈북고아입양법안을 추진하는 등 북한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토포필리아와 토포포비아, 민족과 타자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민족적 장소애, 타자적 장소애, 민족적 장소공포감, 타자적 장소공포감으로 유형화했다. 민족적 장소애는 통일을 위한 각종 교류 활동과 공식적 지원활동, 타자적 장소애는 북한을 저개발국가나 국민지역으로 바라보는 국제원조 및 미·북 교류 중심의 활동, 민족적 장소공포감은 탈북지원과 비공식적 북한 지원 활동, 타자적 장소공포감은 무관심과 회피 혹은 미국 주류사회의 매파적 시각과 동일한 대북 압박적 행동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장소감, 장소심리학, 토포필리아, 토포포비아, 대북 NGO

*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본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수여한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며, 2014 지리학대회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했다. 지도교수인 김용창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덧붙이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cani2004@naver.com)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장소에 소속되고 생애 출발 이후 자연스럽게 장소감을 내면에 형성해 간다. 고향과 같은 특정한 장소와 관련해,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Frederickson and Anderson, 1999). 장소감은 감정적 영역이지만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투자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Nash, 1998; Manzo and Perkins, 2006). 인간주의 지리학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장소감(sense of place)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인 양적 증가가 있어왔으며 커뮤니티심리학, 환경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주요 연구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Sarason, 1974; Bardo, 1976; 권영락, 2005). 그러나 장소감에 대한 연구는 방대한 양적 증가에 비해 체계적인 이론을 세우는 노력과 핵심개념 및 의미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Stedman, 2002). 또한 장소감 개념의 다양한 응용에 따라 장소감 측정에 대한 방법론이 요구되었고 심리학적 이론들을 활용한 연구를 발전시켰다(Semken and Freeman,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심리학은 장소감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구성개념의 명확함을 추구하고 가설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심리학에 기반을 둔 이론과 모델을 활용해 장소와 관련된 행태를 해석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소에 관한 인식, 태도, 정체성, 행위의 의도 등의 심리학적 방법론을 통해 장소감과 그와 관련된 행태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장소감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했으며,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밝히고 그것이 대북 태도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밝히고자 했다. 재미교포는 북한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활동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로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평양종합병원 건립 등이 재미교포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재미

교포들의 활동은 한민족으로서 고국에 대한 지향과 동일한 맥락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모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민족애의 발로인 동시에 외부자로서 객관적 시각을 갖는 재미교포의 대북 장소감은 한국사회의 대북 시선과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미교포는 남북한의 정치적 민감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자유로운 대북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소감과 행태의 연계를 밝히는데 적합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특별히 ‘북한’이라는 지역 혹은 장소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 개인의 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북한은 핵개발이나 3대 세습, 인권 탄압, 굶주림 등으로 인해 동토의 땅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산가족들에게는 그리운 고향이 된다. 즉, 북한은 어떤 사람에게는 혐오와 두려움, 슬픈 기억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호감을 갖고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적 지원까지 마다하지 않는 환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고정주영 회장의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고향에 대한 애착의 표현이라는 측면이 크다.¹⁾

이러한 특정 지역에 대한 장소감은 장소에 대한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행동은 다시 장소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지적 중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소감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가 되는 동시에 해당 장소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Werlen, 1987).

본 연구에서는 북한을 유의미한 ‘장소’이자 ‘장소들의 집합’으로 바라보려 한다. 남북한은 UN에 동시에 가입한 개별 국가인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²⁾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모순을 갖고 있기 때

1) 고정주영 회장의 경우 1998년 500마리의 소떼를 이끌고 휴전선을 넘었다, 금강산 관광을 지속한 것은 어린 시절 고향에서 부모님이 소를 판 돈 70원을 훔쳐 상경했다가 돌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다(《서울신문》, 2008.6.15). 또한 자살폭탄 테러로 암살된 베나지르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의 경우에도 신변의 위협을 알면서도 조국을 찾았다. 부토 총리는 그 이유를 정치적 의도뿐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라고 전했으며, “흙바닥 길 위에 훌뿌리는 빗방울 냄새도 그립고 선영에 성묘 가던 옛 날도 그립기만 하다”고 생전에 말한 바 있다(《연합뉴스》, 2007.12.28).

문이다. 즉 한 존재가 북한에 대해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장소감을 밝히 고자 했기 때문에 북한을 주체가 인식하는 하나의 장소로 간주하고자 했다.³⁾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장소감을 규명하고, 둘째, 그것이 대북태도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연계되는지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밝히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지역과 공간, 장소에 대한 인식 연구는 지리학의 끊임없는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장소는 그것이 좋은 경험이 아닐지라도 항상 장소감을 내포하고 있다(Butz and Eyles, 1997). 장소 혹은 지역에 대해 지니게 되는 다양한 주체의 다각적인 시각과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 장소감은 지리학 사조에 따라 변화되고 때론 부활되었다(김용창, 2011).

인간주의 지리학의 관점에서 장소감(Sense of Place, 場所感)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경험에 기반을 둔 인간의 심리적 상태(의식, 정체성)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장소감이란 지리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과 그 장소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 부여한 의미의 세계가 결합해 생성되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지식, 장소와의 일체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소속감과 애착까지 포함하는 장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관심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서 장소감은 장소애착, 장소의존성, 장소

2)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섬)로 한다.

3) 인간이 어떠한 장소에 대해 갖게 되는 장소감이란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 의미의 대상에 따라 다양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도 개인의 경험세계, 지식, 고정관념, 심리상태 등에 따라 다른 장소감을 갖게 된다. 장소란 이미 인간의 다양한 경험에 의한 의미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Tuan, 1977).

정체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거나(Jorgensen and Stedman, 2001), 장소애착과 장소의 의미 두 가지로 어우러져 있다고 정의하기도 한다(Semken and Freeman, 2008).

장소감에서 논의하는 장소에 대한 고찰은 오늘날 세계화로 인한 범세계적인 이주에 의한 고향 상실 및 존재의 소속감과 정체성의 문제와 관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철학적, 종교적 질문과도 관련되어 있다. 장소감(Sense of Place)은 결국 존재감(Sense of Being)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장소감에 대한 연구는 현상학적이고 존재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장소에 대한 경험세계를 중요시했으며, 결국은 인간의 심리적으로 내재된 의미(방향성이나 호감, 애착, 정체성 등)를 다루어왔다고 할 수 있다(Relph, 1976; Seamon, 1979). Relph(1976)는 장소를 인간 존재의 심오한 중심으로 보았으며, Cohen(1982)은 장소를 인류학적 관점에서 “존재의 특성을 인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Tuan(1976)은 장소란 정서(felt) 가치의 중심으로 보았으며, 사람들의 경험과 열망의 중심으로 간주했다. 계속해서 Tuan(1977)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공간에 가치를 부여하게 됨에 따라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장소에 정체성과 아우라(aura)를 부여하는 것이 장소와 연관된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이다(조아라, 2007). 또한 인간이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보여주는 교감, 존중, 감사, 관심뿐 아니라 가족과 고향에 대한 애착 등을 장소애착으로 규정하면서 지리적 신앙심(geopietty)과 토포필리아(장소애: Topophilia)란 개념을 도입했다(Moore and Graefe, 1994). ‘토포필리아’는 사람과 장소 또는 배경의 정서적 유대라고 할 수 있으며 오감으로 지각하는 것부터 개인의 특성과 선호, 문화 경험 환경에 대한 태도를 포괄한다. Tuan(1974)은 토포필리아라는 개념을 통해 감상, 접촉, 건강, 애착, 태도, 환경, 신성함, 이상, 삶의 양식, 이미지, 상징, 이상향 등을 다양한 사례지역을 통해 설명했다. 또한 토포필리아의 반대 개념으로 장소공포감인 토포포비아(Tophophobia)를 제시했다. 토포필리아가 사랑, 애정, 연민 등을 의미한다면 토포포비아는

공포, 거부, 혐오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장소감의 특성과 장소감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상반된 축으로 토포필리아와 토포비아를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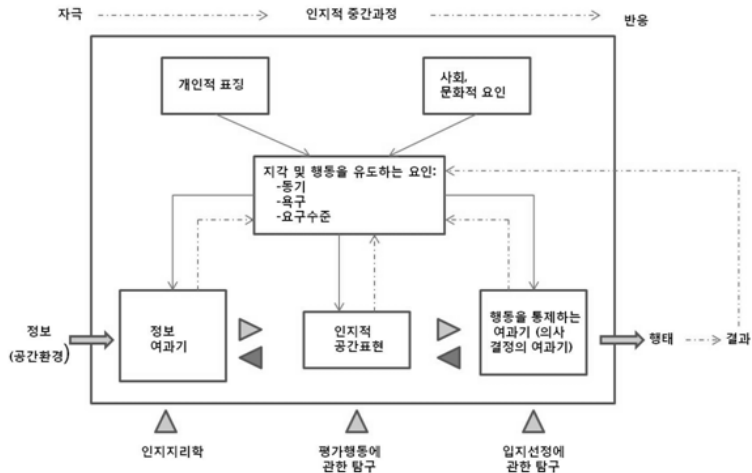
이러한 지리학의 주요 테마인 장소감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심리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장소심리학 개념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았다.

첫째, 장소감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장소인식에 대한 법칙이나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회심리학적 개념(social psychology concepts)에 대응해봄으로써 이미 정립된 측정, 전통적 가설 검증 방법으로 치환해 장소감을 규정하는 시도이다. Hewitt(1991)는 즉 장소애착이 사회심리학적 개념의 정체성, 사회적 삶 안에서 개인의 위치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즉 상징적 상호행동주의와 정체성은 사회적 카테고리 안에서 타인의 기대에 의해 학습된 행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심리학과 유사하다는 것이다(Cottrell and Neuberg, 2005). Stedman(2002)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소에 기반을 둔 인식과 태도, 정체성을 통한 행위의 예측에 대한 연구를 장소 중심적 사회심리학에 도입하고자 했다.

둘째, 장소심리학은 공간지각과 지향(Neisser, 1976), 자아 정체성(Proshansky *et al.*, 1983), 장소애(Tuan, 1974) 등의 사회지리학적 연구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회지리학의 행태모델은 인지적 행동주의 심리학의 자극, 인지과정, 반응의 모델과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행태주의적 사회지리학에서는 공간 환경이라는 것을 공간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하는 주체와 그 특유의 행위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공간 환경은 또다시 인지적 중간과정을 통해 행태를 이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소심리학도 그러한 인식과 인지의 중간과정을 심리학적 관점과 도구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Werlen, 1987).

또한 인간주의 지리학에서 장소감 연구에 대한 논의는 장소가 진정한

<그림 1> 행태주의적 사회지리학의 행태모델



출처: Werlen, 1987: 11.

의미를 찾는 데 기여했으며, ‘장소심리학에서 말하는 ‘장소’의 정의를 제 공하고 있다. 즉 인문 지리학에서 현상학적 방법론의 도입은 선형적이 며, 물리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에 대한 질문을 강조하면서 장소 심리학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고 할 수 있다(Lalli, 1992; Proshansky *et al.*, 1983; Manzo, 2003). 또한 사회지리학의 연구 주제인 지역의식은 로컬리티 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구동희, 2010). 지 역의식은 부정적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 공격성이 강화되지만 긍정적 측 면에서 다양성이 인정되고 투자를 이끌어 내는 기저가 된다(류우익, 1981; Giuliani and Feldman 1993). 지역의식은 사회적 집단 구성원 내면의 장소감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태와 연계한 장소심리학적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셋째, 장소심리학은 행태지리학적 환경심리학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지만 차별성을 갖는다(Golledge and Stimson, 1997). 환경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에 포 함된 여러 요인이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다

(Canter, 1975; 1977). 여기서 환경이란 지구상의 모든 자연과 사회적 배경, 건조환경, 학습환경과 정보환경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De Young, 1990). 장소심리학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장소'의 현상학적 관점의 기여를 강조한다(Auburn and Barnes, 2006). 장소심리학에서의 장소인식은 개인적인 동시에 집합적이며, 역사와 문화, 사회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 동일한 장소라 할지라도 존재가 경험한 사건(fact)과 그것에 대한 배치, 의미(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의미와 존재가 수용한 의미)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인식되며, 때로는 역설적 관계를 갖는 것을 포괄한다(Foucault, 1986; Paasi,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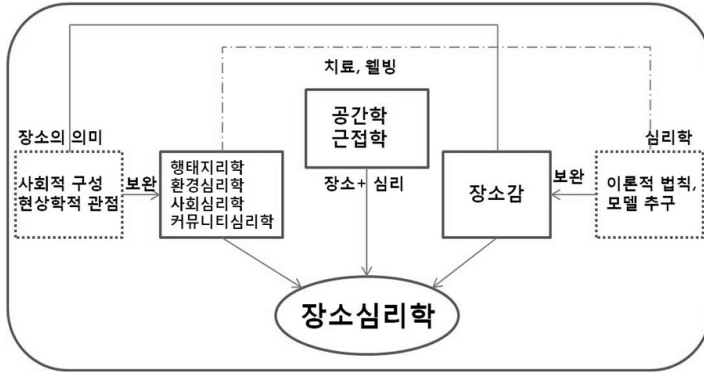
끝으로 '장소'와 '심리학'이 합성된 용어로 접근하는 시각이다. 즉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장소를 오감으로 측정 가능한 물리적 공간으로 바라봄으로써 다양한 장소에 대한 인간의 심리를 밝히는 것으로 장소에 대한 이미지와 감정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지하공간, 쇼핑공간, 치료공간, 집의 재료나 건축스타일, 옷장 공간 등에 대한 느낌, 색깔에 따른 느낌의 변화 등을 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Hall, 1966; Canter, 1975; Marcus, 1995, Marcus & Barnes, 1999; Ulrich, 1992; Korpela and Ylen, 2007).

이상 네 가지 접근을 통해 장소심리학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림 2>를 통해 요약 정리해보았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재미교포의 다양한 대북 활동을 장소감과 연계해 해석해보고자 했다. 북한에 대한 일련의 행태들은 북한에 대한 그들의 장소감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특정한 장소감은 때로 모순되어 보이는 행동에 대한 개연성을 설명하는 단서가 되고 북한에 대한 가치판단의 준거가 된다.

즉 재미교포로서 모국에서의 교육과 경험, 이민을 통한 급격한 사회문화적 변화와 같은 생애주기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간생태학적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북한과 관련한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장소

<그림 2> 장소심리학의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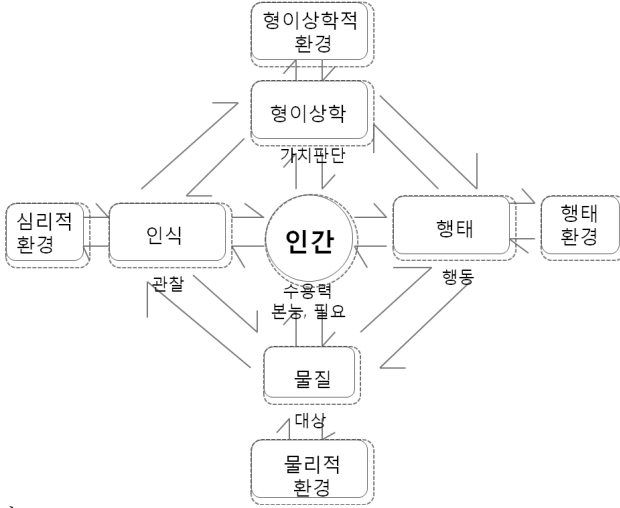


감과 다양한 대북 활동을 연계해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적 인간행동과 자연·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의 횡단면은 이정만(1998)의 인간 생태학 모델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형이상학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식적·심리적 환경과 행태환경의 상호작용을 생애에 걸쳐 지속하고, 다양한 인간생태시스템 속에서 또 다른 삶을 영위하는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인간은 거시적으로 다양한 장소 안에서 그만큼의 다양한 장소감을 형성하며, 동일한 장소라 하더라도 주체에 따라 장소인식, 태도는 다를 수 있다(Soja, 199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간지리학적 관점의 장소감을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행태와 연계해서 해석하고자 한다. 즉 지리학과 심리학의 학제간 연구로서 자극과 신념, 태도 그리고 행동의 연계(S → 인지과정 → R)라는 인지적 행동주의 도식을 바탕으로 장소감과 행태의 연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Piaget, 1953; 강상경, 2011). 여기서 인지적 행동주의란 환경적 자극의 영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환경을 개인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인지매개가설과 이러한 인지구조의 변화를 통해 행동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개입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⁴⁾

<그림 3> 인간 생태시스템의 개념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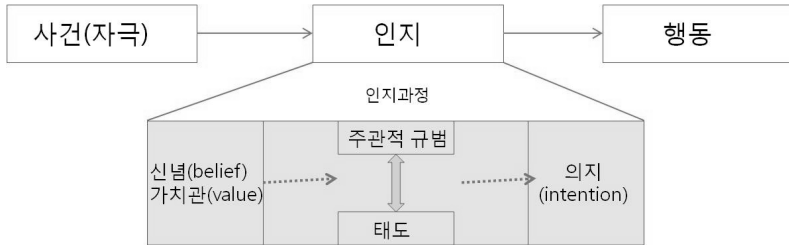


출처: 이정만, 1998: 682.

이러한 인지적 행동주의 모델은 앞서 살펴본 행태주의적 사회지리학의 행태모델과 유사하게 환경에 의한 자극과 인지과정을 통해 행동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의사결정과정이나 기억, 정보처리과정에서는 환류하는 피드백의 과정이 있고 인간생태학적 관점에서도 행동은 인간의 신체, 심리, 자연·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지행동주의 심리학의 관점에서 재미교포의 대북관련 행태를 인지과정을 통해 거쳐 나온 단방향의 결과물로 간주했다. 요약하자면 인간주의 지리학적 관점에서 북한이라는 ‘장소’가 재미교포에게 갖는 의미, 즉 장소감은 인지과정의 한 단계로서 행태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4) 이러한 인지적 행동주의는 자극이 인간의 심리 상태인 태도를 비롯한 인지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보며, 일정한 정보처리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로서 주로 단방향적인 절차를 통해 설명된다(최종오, 2010).

<그림 4> 인지적 행동주의 모델



출처: 최중오, 2010: 71; 강상경, 2011: 175를 재구성.

3. 연구의 대상 및 조사방법

연구대상인 재미교포는 2010년 현재 약 14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 약 3억 20만 명의 0.47%에 해당된다.⁵⁾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직·간접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재미교포로 연구대상을 제한해 통계적 편향성을 제거하고자 했다.⁶⁾

본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1개월 간 3차에 걸쳐 실시되었다. 300개의 설문지를 배포해 202개를 회수, 67.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한 설문 가운데 유효설문 182개를 최종 연구 자료로 사용했다. 설문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설문응답자의 성비는 남성 75명(41.2%), 여성 107명(58.8%)이며, 미국 거주기간은 평균 20.3년(남성 22.2, 여성 19.0), 최단 2년에서 최장 44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18명의 경우 대부분 시민권자이며, 시민권은 영주권을 받은 이후로 최소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할 수 있다.⁷⁾ 이것

5) 미국 인구센서스(U.S. Census) <http://www.census.gov>.

6) 설문은 대북관련 NGO단체, 한인교회, 실향민(2012년 고국방문단)모임, 통일선교대학에서 각각 실시했다.

7) 북한은 영주권자도 해외동포로 간주해 해외동포원호위원회에서 입국을 담당하

< 표 1 >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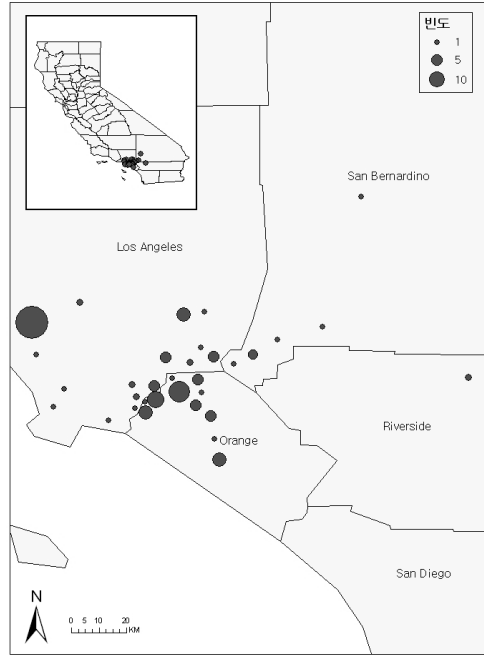
연령	성별		전체
	남성	여성	
20대 미만	0	3	3
20대	6	16	22
30대	16	37	53
40대	14	23	37
50대	14	11	25
60대	11	12	23
70대 이상	14	5	19
전체	75(41.2%)	107(58.8%)	182

은 재미교포들이 북한을 인식하고 행태와 연계해 나갈 때 한국적 사고와 미국적 사고를 동시에 하는 것을 뒷받침한다.⁸⁾ 설문응답자는 LA 카운티, 오렌지카운티, 샌베르날디노 등에 거주하고 있다.⁹⁾

고 있지만 최근 미국사회는 여러 가지 경제난에 의해 자국 시민권자에 대한 보호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북한에서 당할 수 있는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 8) Nisbett(2003)에 의하면 재미교포의 경우 다양한 사안을 인식할 때 한국 정체성과 미국 정체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즉 미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정체성의 차이를 보이는데 미국 내 거주기간이 긴 경우(10년 이상) 미국과 동일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개인주의적이며 논리적 사고를 하고, 사물(단일 현상)에 주목하며 민족애가 낮고 무관심한 경향이 높다. 미국 내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5년 이하) 한국과 동일시하며 사물보다는 전체적 배경에 집중하고, 민족애가 높으며 좀 더 정적인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로는 민족애의 경우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민 1세에서 높게 나타나고, 1.5세, 2세대는 민족애가 점차 희석된다고 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거주기간 응답자들은 대부분 유학생 집단으로서 친구의 권유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북한 관련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 9) 본 연구자가 사례로 연구한 캘리포니아 주에는 약 4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오렌지카운티에 8만 7천여 명, LA 카운티에 21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전 미국 내 한인 인구의 약 21.64%로 거대한 한인 밀집 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적 문화 파급력과 한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강한 것을 의미한다(홍기선 외, 1980; 허근, 1994).

<그림 5> 응답자의 거주지역



자료: 설문조사.

응답자의 한국에서의 교육 수준은 대학원 이상이 33명(19.41%), 대학교 이상이 73명(42.94%)으로 고학력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93명(전체 응답자의 51.09%)의 교육 수준은 이보다 높은데 대학원 이상이 30명(32.25%), 대학교 이상이 50명(53.76%)을 차지한다. 응답자의 직업은 전문직이 43명(25.1%)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21.6%), 비즈니스 운영과 학생(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 인터뷰는 총 3차에 걸쳐 2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2회 실시했다. 구체적인 인터뷰 대상과 인터뷰 일지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을 재미교포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재미교포들은 북

< 표 2 >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대상	인터뷰 일자(LA기준)	비고
1차 조사	LA 한인회 담당자	2009년 1월 30일	사무직원
	L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	2009년 2월 2일	UCLA 연구교수
	LA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2009년 2월 9일	
	SAM 의료복지재단 행정실장	2009년 2월 10일	NGO 직원
	Orange County S교회 북한선교 담당자	2009년 2월 11일	의사
	휴스틴 북한지원 활동가 전화인터뷰	2009년 2월 12일	의사
	Dawn mission 관계자	2009년 2월 13일	
2차 조사	이영호 장로	2009년 12월 27일	워싱턴주, 실향민, 의사
	LA○○교회파송 이민복 선교사	2009년 12월 27일	탈북자
	LA KJW 담임 목사 (1차)	2010년 2월 10일	이민1.5세
	VOWE 선교회 대표	2010년 2월 13일	실향민
	LA KJW 담임 목사 (2차)	2010년 2월 20일	이민1.5세
	VOWE 선교회 모임 참석	2010년 3월 13일	모임참석 (Hacienda Heights)
	VOWE 선교회 모임 참석	2010년 4월 10일	모임참석 (Hacienda Heights)
3차 조사	VOWE 선교회 방북보고회 참석	2010년 5월	방북보고회 참석 (Hacienda Heights)
	Orange County S교회 KYJ	2012년 2월 14일	의사
	Orange County S교회 KHJ	2012년 3월 3일	전도사
	LA 빛나라 교회 문정임 담임 목사	2012년 3월 20일	미주 최초 탈북자 교회
	남가주이북도민협의회 최창준 회장(1차)	2012년 3월 15일	실향민
	남가주이북도민협의회 최창준 회장(2차)	2012년 3월 20일	2012년 고국방문단
	WJP 목사 (1차)	2012년 3월 26일	
	KKS 목사	2012년 3월 26일	모퉁이돌 선교회 정기 모임 1차 참석
	북한 전문 영상예술, 사진가, 선교사	2012년 3월 26일	
	WJP 목사 (2차)	2012년 4월 9일	모퉁이돌 선교회
	Jhosua S 목사	2012년 4월 9일	조선족 재미교포, 북경대졸
KSW 목사	2012년 5월 10일	LA 통일선교대학	
KJS 목사	2012년 5월 10일	LA 통일선교대학	

KKW 사모	2012년 5월 10일	LA 통일선교대학
WMN 권사	2012년 5월 10일	NGO 대표
LKY 집사	2012년 5월 10일	수의사
CHJ 회사원	2012년 5월 10일	UCLA 졸업
Joyce 8학년 학생	2012년 8월 14일	KCC 탈북고아입양법안 추진 서명운동
Diane 시카고 예술 대학교 1학년	2012년 8월 14일	KCC 탈북고아입양법안 추진 서명운동
SIS 목사	2012년 9월 1일	KCC 대표

* 신변상의 이유로 인터뷰 대상자들 가운데 몇 명의 이름은 알파벳 약자를 사용했다.

한의 개발과 지원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종합병원, 백학유치원 등을 설립했고, 기타 농업, 산림업, 축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차적으로 고향을 떠난 사람들로서 남북한의 정치적 민감함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재미교포는 미국사회에서 미국주류사회의 북한지원을 이끌어 내고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한국 NGO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어 연구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는 고문과 굶주림을 경험한 탈북자 혹은 선교사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 및 구제활동을 지속하는 행태와 북한의 열악한 수용소나 중국 감옥에서의 억압과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견뎌온 탈북자가 자유의 땅인 남한이나 미국에 정착한 이후 죽음을 선택하는 행태에 주목했다.¹⁰⁾ 즉 결국 장소가 갖는 본질, 객관적 특성 혹은 공간 환경을 초월해 나타나는 다양한 행태는 장소의 고유한 성격과 그 장소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뛰어넘는 심리적 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Billing(2006)은 가자

10) 비슷한 맥락에서 Matz and Wood(2005)는 행동과 신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태도를 바꾸게 되는 인지부조화이론이 개인뿐 아니라 집단 내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밝혔다. 즉 다른 사람의 태도에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Gaza)지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위험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확고한 신념과 장소애착, 신앙심을 나타낸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장소감과 행태의 연계는 인과적인 관계뿐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신앙, 사회적 용인 정도에 의해 때로는 모순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 한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부여한 삶의 장소에 대한 주관적 의미는 존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장소심리학적 접근 시각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교포를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유형화하고 다양한 장소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북 활동과의 연계성을 장소심리학적 관점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4.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 유형화

재미 대북 활동가들은 주기적인 정치적 이슈(핵실험, 천안함 사건, 김정일 사망, 미사일 실험 등)나 북한의 자연적 상황(가뭄, 홍수)에 따른 변화를 섬세하게 감지하며, 경험과 가치관을 통해 토포필리아(Topophilia)와 토포포비아(Topophobia)의 증척된 대북 장소감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의 공간성은 고통을 호소하며 공황을 원하는 타인의 얼굴이자, 전쟁 가운데 있는 적의 얼굴로 증척된다(강연안, 2005). 본 연구에서는 재미교포 대북 활동가들의 장소감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대한 자유연상과 북한 장소 이미지를 조사했다.¹¹⁾ 먼저 장소심리 프로세스의 첫 출발점으로 북한에 대한 원초적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북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유연상을 기재하게 한 후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11) 김택환(2000)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의 대북 이미지가 개선되었음을 밝혔고, 김태현 외(2003)는 한국인들이 국가로서 북한에 대해 갖는 이미지가 대북 외교 태도와 관계됨을 밝힌바 있다. 또 박명규 외(2011)는 북한 이미지의 측정을 통해 현상과 이미지의 간극을 설명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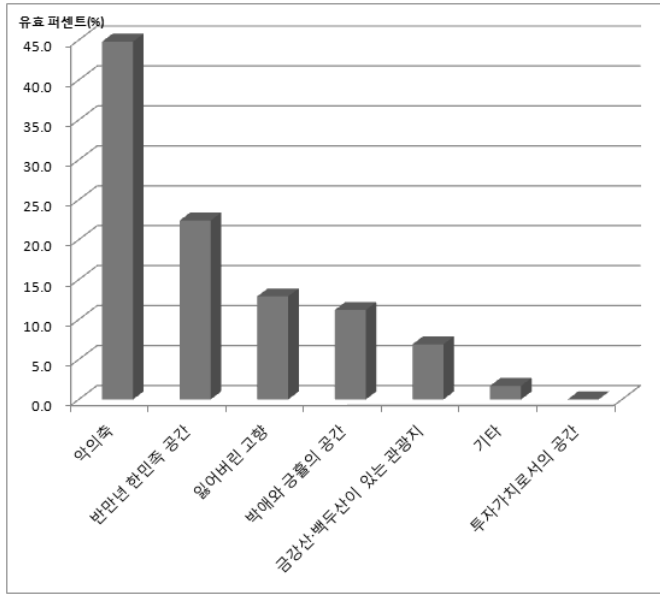
< 표 3 >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원초적 이미지

대분류	원형 이미지(빈도 수)	전체 빈도 수	비율(%)
북한정권	독재정권(20), 공산주의(16), 공산당(11), 사회주의(1), 군주제(1), 핵(7)	56	29.31
	김일성(24), 김정일(8), 수령님(1), 김일성 동상(2), 체제변화(1), 민주화필요(1)	35	18.32
		2	1.04
북한주민	가난(12), 굶주림(10), 기아(3), 학대(1)	24	12.56
	자유없음(4), 인권 탄압(2), 탈북(3), 고아(1)	10	5.23
분단	6.25(5), 전쟁(3), 남침(2), 분단(1)	11	5.76
	괴뢰집단(3), 주적(1), 빨갱이(2), 남의 나라(1)	7	3.66
긍정적·부정적 감정 표현	종교적 인식 우상숭배(1), 영혼구원(1), 지하교회(1), 저주받은 땅(1), 선교(1)	5	2.61
	상징과 감정 어둠(1), 적개심(2), 고통(1), 빨강색(1), 폐쇄(2), 철의 장막(1), 사악함(1), 강압(1), 억압(3), 불쌍함(4), 고립(1), 옥수수(1)	19	9.94
민족애	동포(5), 민족(4), 고향(4), 통일(2), 내나라(1)	16	8.37
자연경관, 지명	금강산(2), 백두산(1), 평양(1), 원산(1), 민동산(1)	6	3.14
합계		191	100%

자료: 설문조사.

재미교포들은 북한에 대해 독재정권, 김일성, 공산주의, 3대 세습 등 북한 정권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있으며 핵과 전쟁 등의 분단 상황과 가난, 굶주림 등의 북한의 기아, 인권 유린을 가장 원초적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어둠과 옥수수, 민동산과 같은 상징적 표현과 적개심, 사악함, 불쌍함과 같은 감정적 표현도 약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내재적인 인식은 일견 모국인 한국 사회의 대북 인식과 유사하며,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에 영향을 받는다고보다 이민 이전 모국에서의 경험과 세대 간의 차이에 더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60, 70대의 실향민 집단은 북한에 대해 극도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치열했던 6.25전쟁과 이로 인한 비참함이 기억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¹²⁾

<그림 6> 북한에 대한 장소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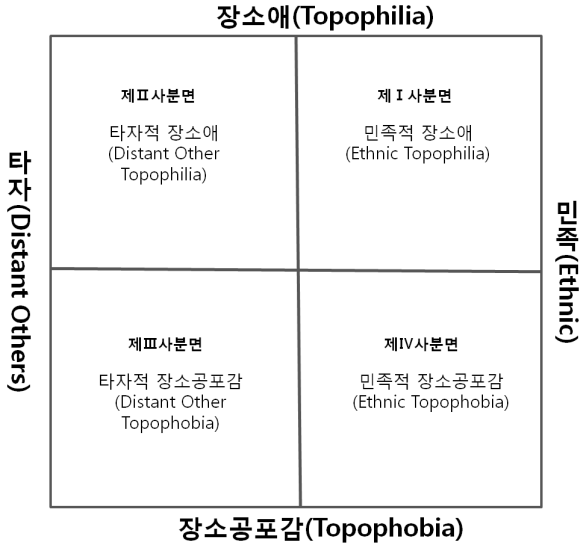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두 번째로 재미교포 대북 활동가들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의 한 부분으로서 어떠한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토포필리아적 경향성으로 ‘반만년 한민족 공간(22.41%)’, ‘잃어버린 고향(12.9%)’, ‘박애와 공흥의 공간(11.2%)’, ‘금강산·백두산이 있는 관광지(6.89%)’, ‘투자가치로서의 공간(0.1%)’이라는 보기를 제시했고, 토포포비아적 장소 이미지로 ‘악의 축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 북한에 대해 ‘악의 축’으로 생각하

- 12) 본 연구자가 2012년 실향민 고국 방문단을 인터뷰한 결과 북한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동수(1992)의 북미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조사보고를 보면 실향민의 애잔한 고향애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은숙(2004)의 재미한인의 이민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 가운데 고향이 북한이면서 대북지원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가 있어 실향민의 대북 인식은 개인의 북한 경험에 기반을 둔다고 볼 수 있으며,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7> 장소감의 4가지 유형



는 사람이 44.8%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부시정부의 ‘악의 축’ 발언이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깊이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기저에는 민족애를 포함한 다층적 감정 또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장소감의 특성을 바탕으로 장소감과 행태의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에 대한 민족적 시각과 타자적 시각(횡축), 장소애와 장소공포감(종축)이라는 연구자의 인위적 준거를 바탕으로 장소감을 4가지로 유형화했다. 즉 북한에 대한 민족적 장소애(Ethnic Topophilia)와 타자적 장소애(Other Topophilia), 민족적 장소공포감(Ethnic Topophobia)과 타자적 장소공포감(Other Topophobia), 이 4가지의 장소감 유형에 따라 어떠한 대북 행태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그림 7>과 같이 두 축을 기준으로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4가지로 유형화하기 위해 먼저 종축인 장소애(토포필리아)와 장소공포감(토포포비

아)은 북한에 대한 인정(acceptance) 정도를 통해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즉 북한에 대한 인정정도를 ‘① 북한을 완전히 부정한다. ② 체제와 주민 모두 부정한다. ③ 체제는 부정하고 주민은 인정한다. ④ 체제와 주민 모두 인정한다. ⑤ 북한을 완전히 인정한다.’ 이상 5점 척도로 물었다. 그 결과 북한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 9명(12.7%), 체제부정, 주민부정 8명(11.3%), 체제부정, 주민인정 51명(71.8%), 체제긍정, 주민긍정 2명(2.8%), 북한 완전긍정이 1명(1.4%)으로 집계되었다. 북한 체제와 주민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71.8%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유형 분류를 위해 추가적으로 장소이미지 문항을 분석해 토포필리아적인지, 아니면 토포포비아적인지 구분했다.

종족인 민족적 시각과 타자적 시각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북한과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10점 척도로 물어서 평균을 사용했다. 즉 심리적 거리를 통해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인식하는지 혹은 이민자로서 타자화하는지 그 정도를 살펴보고자 했다.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민족으로 바라보는지 나와는 다른 타자로 바라보는지를 나타내는 것 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 또한 반영하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의 평균을 사용했다.¹³⁾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평균 7.15(빈도수 177)이며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평균 4.61(빈도수 177)이다.¹⁴⁾

13) 사실상 이 척도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야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개발 참여가 거시적으로 민족애와 모국에 대한 지향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다. 실제 남·북한에 대한 각각의 심리적 거리는 양의 상관관계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남한에 대해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도 가깝게 생각했으며, 이는 남한에 대해 멀게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도 멀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재미교포에게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남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대치한다기보다 통일이 나 구제와 같은 포괄적 의미 안에서 한민족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14) 연령별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20대 7.52(21명, 11.86%), 30대 7.58(52명, 29.38%), 40대 6.84(37명, 20.90%), 50대 6.76(25명, 14.12%), 60대 6.50(22명, 12.43%)으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북한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 2세들의 한국 교육경험 부재와 북한에 대한 배경

<표 4> 장소감 유형별 응답자 수

응답자 수	타자적 장소애			민족적 장소애			
	남·북한 심리적 거리	북한 인정 정도	장소 이미지	응답자 수	남·북한 심리적 거리	북한 인정 정도	장소 이미지
1	8.5	5	잃어버린 고향	1	3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2	8.5	4	박애와 공흥의 공간	2	5.5	3	금강산, 백두산이 있는 관광지
3	7.5	3	잃어버린 고향	3	2	3	잃어버린 고향
4	7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4	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5	7	3	박애와 공흥의 공간	5	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6	7	3	박애와 공흥의 공간	6	2.5	3	잃어버린 고향
7	8.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7	4.5	3	금강산, 백두산이 있는 관광지
8	7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8	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9	6	3	잃어버린 고향	9	5.5	3	금강산, 백두산이 있는 관광지
10	6	3	잃어버린 고향	10	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11	7	3	박애와 공흥의 공간	11	5.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12	6.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12	5.5	4	잃어버린 고향
13	9.5	3	박애와 공흥의 공간	13	5.5	3	금강산, 백두산이 있는 관광지
14	6	3	잃어버린 고향	14	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15	6	3	금강산, 백두산이				

지식 부족 때문으로 간주된다.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민족의식이 약하고, 동시에 미국이 제시하는 'an axis of evil'이라는 고정관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있는 관광지				
16	9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17	8	3	잃어버린 고향				
18	7.5	3	반만년 한민족 공간				
19	7.5	3	박애와 공홀의 공간				
20	8	3	박애와 공홀의 공간				
21	6	3	잃어버린 고향				
22	8	3	박애와 공홀의 공간				
23	7.5	3	금강산, 백두산이 있는 관광지				
타자적 장소공포감				민족적 장소공포감			
응답자 수	남북한 심리적 거리	북한 인정정도	장소 이미지	응답자 수	남북한 심리적 거리	북한 인정정도	장소 이미지
1	6.5	3	악의 축	1	4.5	1	악의 축
2	8	2	금강산, 백두산이 있는 관광지	2	4	3	악의 축
3	7	2	박애와 공홀의 공간	3	4.5	3	악의 축
4	8	1	악의 축	4	5.5	3	악의 축
5	6	1	악의 축	5	5.5	2	잃어버린 고향
6	7.5	3	악의 축	6	5.5	3	악의 축
7	9	1	악의 축	7	4	3	악의 축
8	6.5	1	악의 축	8	4.5	2	금강산, 백두산이 있는 관광지
9	6.5	3	악의 축	9	3	1	악의 축
10	8	2	악의 축	10	4	3	악의 축
11	8.5	3	악의 축	11	5.5	3	악의 축
12	10	1	잃어버린 고향	12	5	3	악의 축
13	6.5	1	잃어버린 고향	13	5.5	3	악의 축

14	6.5	3	악의 축	14	5.5	2	박애와 공황의 공간
----	-----	---	------	----	-----	---	------------

자료: 설문조사.

장소감과 태도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해 전체 설문 응답자 182명 가운데 북한에 대한 자유연상과 장소 이미지, 의미, 북한 인정정도, 남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 북한 관광에 대한 찬반 여부, 북한 지원에 대한 관심정도 총 8개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65명을 각각의 유형화된 장소감에 배치했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와 같이 민족적 장소에 유형은 북한의 열악한 상황을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고 더불어 모국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타자적 장소에 유형의 경우 미국시민으로서 모국의 정치적 민감함에서 벗어나 북한을 민족의 관점보다는 공황을 원하는 타인의 얼굴로 바라보고 있다. 민족적 장소공포감 유형은 민족적 시각이 갖는 토포필리아적 특성을 내포하지만 북한에 대한 토포포비아적 느낌이 보다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탈북자와 같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같은 현상에 주목하며, 북한을 저주받은 곳, 그러나 해방해야 할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북한을 공포공간으로 인식하지만 동시에 민족애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활동을 해나간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타자적 장소공포감 유형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받아들이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곳으로 간주한다. 결국 연구자가 제시한 두 축인 토포필리아와 토포포비아, 민족적 시각과 타자적 시각은 북한에 대한 모순된 장소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고의 하나로서 ‘기쁘면서 슬픈 감정’과 같은 모순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유형화한 각각의 장소감은 행동의 매개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태도와 연계된다. <표 5>와 같이 북한지원에 대한 관심정도, 북한 관광에 대한

< 표 5 > 북한에 대한 장소감 유형과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

	장소감 유형	지원관심도	관광의사	영향력 인식
장소감 유형	1			
지원관심도	.297*	1		
관광의사	.343**	.274*	1	
영향력 인식	.242*	.535**	.293**	1

Spearman의 rho

* P<0.05, **P<0.01

* 민족적 장소에 4점, 타자적 장소에 3점, 민족적 장소공포감 2점, 타자적 장소공포감 1점으로 각각 인위적인 점수를 부여해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찬반의사, 북한에 대한 영향력 인식과 연계됨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체제 유지에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대해야 한다는 입장과 설사 균용으로 전용될지언정 헐벗고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도와야 한다는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북지원을 이야기 하면 좌파, 북한 인권을 이야기 하면 우파라는 두 잣대가 생긴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김병로, 2009). 이러한 북한 지원에 대한 의사표현은 북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감과 행태의 연계를 밝히는데 주요 분석주제라 할 수 있다.¹⁵⁾ 북한 관광에 대한 가치판단 또한 매우 대립된 시각을 갖는다. 즉 북한 관광이 북한 체제 선전 도구로, 관광을 통한 수익은 체제 유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신변 위협이 따른다는 부정적 입장과 북한 관광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

15) 북한 지원에 대해 ① 관심 없다, ② 반대한다, ③ 반대하진 않지만 나는 하지 않는다, ④ 지원할 의사가 있다, ⑤ 현재 지원하고 있다고 질문한 결과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5명(6.8%), 반대 1명(1.4%), 반대하지는 않지만 하지 않겠다는 경우 21명(28.4%), 지원할 의사가 있는 응답이 39명(52.7%), 실제 지원하고 있는 경우 8명(10.7%)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입장이 36.6%, 긍정적 입장이 63.5%로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미 대북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키고 개방을 이끄는 한편 북한에 대한 편견과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이 그것이다.¹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감에 따라 이러한 가치판단이 어떠한 연계를 갖는지 상관관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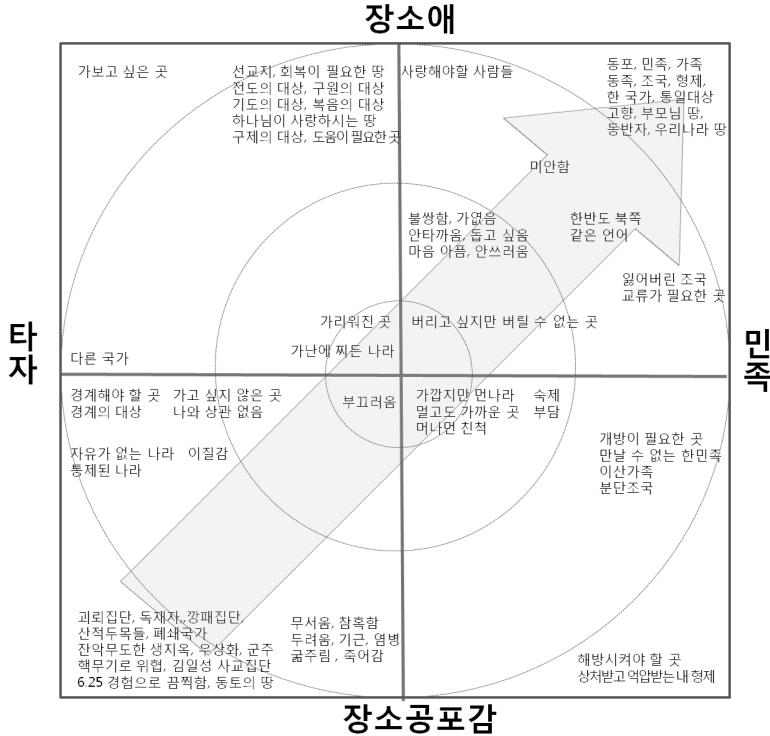
그 결과 민족적 장소애와 타자적 장소애를 형성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의사가 강하고 북한 관광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대북 활동을 통한 재미교포의 대북 영향력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민족적 장소공포감과 타자적 장소공포감을 형성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의사가 낮고 북한 관광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며 북한에 대한 재미교포의 영향력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남남갈등의 이면에 상반된 대북 경험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북 장소감이 존재함을 인식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러한 장소심리학적 접근은 결국 장소감의 주체, 즉 누구의 장소감인가, 그리고 그 존재의 생애주기적 인간생태환경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행동은 세상을 보는 각각의 인식에 따라 무한히 많은 점들이 퍼져있는 것처럼 다양하지만 이러한 주관성에 대한 이해는 결국 세상(사회체계)이 객관적 실체라는 판단에 이르기 때문이다(Nisbett, 2003). 다시 말해 특정한 장소감을 형성하게 된 각각의 독특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과의 개연성을 설명하는 단서가 되고, 나아가 북한에 대한 다양한 가치판단을 상호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준거가 된다.

이러한 장소감의 유형화를 바탕으로 재미교포 대북 활동가들에게 북한이 갖는 의미를 4사분면에 배치해 보았다.¹⁷⁾ ‘가리워진 곳’, ‘버리고 싶지만 버릴 수 없는 곳’, ‘머나먼 친척’과 같이 긍정적이면서 부정적 의미

16) 북한 관광에 대한 의견은 ‘적극 반대’ 3명(4.1%), ‘반대’ 14명(18.9%), ‘상관없음’ 28명(37.8%), ‘찬상’ 25명(33.8%), ‘적극 찬상’ 4명 (5.4%)으로 찬반의사가 양립되고 있다.

17) 설문 응답자에게 ‘북한은 귀하에게 어떤 의미(meaning)를 갖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자유롭게 기재한 답을 연구자가 정리했다. 북한이 갖는 ‘의미’ 또한 장소감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8> 대북 장소감의 사분면에서 살펴본 북한에 대한 의미



자료: 설문조사.

를 동시에 갖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민족적 시각과 타자적 시각, 장소애와 장소공포감이 중첩된다고 할 수 있다. 동심원의 끝으로 갈수록 ‘강대집단, 혹은 ‘가족과 같은 극단적인 장소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사분면인 타자적 장소감이 북한을 참혹한 폐쇄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면, 1사분면인 민족적 장소애는 북한을 고향이자 통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사실상 북한을 바라볼 때 완전한 타자적 접근, 혹은 완전한 민족적 접근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은 타자

적 장소공포감에서 민족적 장소애 쪽으로 변화하면서, 인권활동과 지하 교회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처참한 실상을 밝히고 종교탄압, 탈북자 처형 등을 규탄하는 행태와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북지원 및 교류와 통일준비 활동까지 아우른다고 볼 수 있다.

5. 장소감에 따른 대북 NGO 특성

Tournier(1965)는 국제적십자와 같은 NGO 수장들의 진취적인 활동의 동기를 '삶의 모험(L'aventure de la vie)'으로 해석했다. 즉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추진력을 모험이라고 보았다. 모험은 목표를 추구하는 응집력을 갖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해야만 한다. 북한지원 활동이나 인권운동, 통일운동을 생애 목표로 정한 소수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모험을 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교포 대북 활동가들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크게 4가지로 유형화했으며 그에 따른 대북 NGO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대북 전문 활동가들은 북한과 관련한 강렬한 경험, 유의미한 만남 등에 의한 장소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간생태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일정한 방향의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먼저 민족적 장소애(Ethnic Topophilia)의 경우 주로 북한에서 태어나거나 부모님의 고향이 북한인 원초적 집단(실향민, 이산가족)이 해당되며,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지원과 통일운동을 벌이고 있다. 즉 자신의 존재의 출발부터 관련이 있으며, 북한에 평양종합병원을 설립한 SAM의료재단의 박세록 원장이나 북한을 50회 이상 방문한 VOWE 선교회의 김대평 목사, 매년 크리스마스를 북한에서 보내는 의사 이영호 씨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고향이 북한으로 북한의 변화와 발전을 향한 매우 강한 집념과 애착을 갖고 있는 동시에 과감하며 용기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을 지원하는 이유는 먼저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같은 문화(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1992년 처음 북한을 방문했고, 1997년 밀가루 100톤을 싣고 심양과 단동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방문했다.”

(남, 남가주교회협의회 ○○○ 목사)

“골육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보다 못하다. 죽어가는 형제 동포를 돌보아야 한다. 요셉처럼 골육을 용서해야 한다.¹⁸⁾ 6·25 전쟁의 상처가 너무 크다. 작은 땅에서 형제자매가 600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화해가 필요하다. 남한에도 많은 사상자가 있었지만 북한은 용단폭탄으로 초토화되었다. 아프게 싸운 상처를 끊어야 한다. 회복, 신유가 필요하다. 민족의 상처, 아픔을 healing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남, Seattle, 의사 이영호, 인터뷰)

이러한 민족적 장소애 유형은 민족의식과 고향애를 바탕으로 대북 지원 활동을 펼친다고 할 수 있으며 모순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경험한 당사자인 경우도 있다. 대북관련 NGO로 등록된 경우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기도 하며 재미교포 사회나 한국 사회에서 친북, 때로는 간첩으로까지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들의 대북 장소감에는 형제의 나라, 다가가야 할 존재, 고향 등 강한 민족 공동체 의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타자적 장소애의 경우는 북한을 민족과 동포라는 인식과 별개로 인류애적 관점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집단과 연계된다. 기부 문화가 발달된 미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북한을 빈곤지역으로 간주해서 돕는 국제원조기구 등이 이에 해당된다(UNICEF 등).

18) 요셉은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자신을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다.

“북한에 지원하는 동기는 사실 특별한 건 없다.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신 것, 동포에 대한 사랑, 연민, 사랑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남, Los Angeles, ○○○ 목사, 인터뷰)

“나는 멕시코, 중앙아시아, 터키, 우즈벡, 몽고, 페루, 파라과이 등 꽤 많은 지역을 다니며 선교사역을 했다. 그런데 북한 뉴스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방문했던) 인디언마을, 혹은 그 어떤 오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았다. 이후에 북한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남, 통일선교대학, ○○○ 의사, 인터뷰)

타자적 장소에 유형은 북한에 대해 자신과 동일시하는 민족의 관점보다는 긍휼을 원하는 타인의 얼굴로 접근하며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시민으로서 갖는 북한에서의 신변 보호 측면과 기부 및 자원봉사가 익숙한 사회적 배경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적 장소공포감은 북한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북한을 정치범 수용소와 공개처형, 학대와 고문 등과 같은 인권유린의 장소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원이나 방북행동을 하는 순교자적 집단(martyr group)의 장소감이라고 할 수 있다. 실례로 모둥이들선교회의 대표, 이삭 목사의 경우 북한 공작원들에게 중국에서 18시간 고문을 당했지만 변함없는 대북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무섭지만 북한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의 인생행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렬한 경험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유연과 같은 당부는 ‘평양에 가면 절대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묻히라’는 것이었다. 20여 년 동안 북한에 성경 약 8만 권을 들여보냈으며 압록강 유역에서 쌀주머니를 단 보트를 띄내려 보내기도 했다. 1991년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들에 의해 전기고문을 당하고 영하 20도의 냉방에 갇히는 부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북한 본토

에 대한 인도적 지원보다는 중국 내 탈북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래는 2012년 9월 1일 연구자가 직접 참석한 오렌지카운티의 한 교회에서 들은 KCC 대표 손인식 목사의 설교 내용 가운데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 동기가 되었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태평양이 아무리 멀어도 2,300만 동족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매 맞고,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 방 안에서 아사로 죽는 현실들. 우리 민족(북한)이 이렇게 된 데는 듣지 못하는 귀 때문이다... ‘안도현에 탈북자가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구출하러 갔다 너무 늦게 도착해 중국인 민가에 민박을 했다. 잠을 청하는데 여인의 비명소리가 계속 들렸다... 긴 막대기를 놓고 중국식 대들보에 여인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얼마나 맞았는지 막대기에 피가 묻어있었다... 한국 남자들, 무력한 지도자들, 못한 남자들이 우리의 딸들을, 아내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선교사의 편지를 받고 북한 동족을 위한 통곡기도회를 시작했다.”

(손인식 목사의 설교 중에서 발췌)

현재 LA에서 재미 탈북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문정임 목사의 경우 우연히 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후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뉴욕에서 6명의 탈북자와 교회를 시작했다.

“2004년 9월27일 LA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컨퍼런스가 열렸다. 1300명이 모이는데 어떤 목사님을 통해 초청되었다. 한민족이니 당연히 가야한다는 생각으로 참석해서 탈북자 간증을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다. 신문지상에서는 봤지만 실제 탈북여성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임신을 하고 갇히고, 배가 고파서 손을 그어서 피가 나면 피를 먹었다던 비참한 경험을 말할 때 충격. 2박 3일 동안 잠을 못 잤다.”

(미국 내 탈북자들을 위한 최초 교회, 문정임 목사, 인터뷰)

민족적 장소공포감 유형은 북한에 대한 민족적 시각이라는 토포필리아적 특성을 갖지만 토포포비아적 시각이 좀 더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의 고통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잔인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다. 신변의 위협이 따를 것을 염두에 두지만 북한의 개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을 향해 일어나고 있는 '사랑과 '공포'와 같은 모순된 감정과 지속되는 방북행동은 민족적 장소공포감이라는 이중적인 장소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재미교포 2세대들은 미국 주류사회에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영어가 불편한 1세대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호주, 유럽 등의 국제인권단체들과 연계해 초국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벌이고 있다(김유정, 2010).

끝으로 타자적 장소공포감은 북한을 나와는 상관없는 세계평화에 위협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수동적 집단(passive group)의 장소감이자 북한을 압박하고 개방과 개혁을 촉구하는 압박적 집단(oppressive group)의 장소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매파적 시선으로서 대북제재를 가하거나 6자 회담과 같은 외교의 장으로 끌어내는 노력 등의 행태와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장소애와 장소공포감 그리고 민족적 시각과 타자적 시각에 따른 재미 대북 NGO와 그 활동들을 정리해보면 <표 6>과 같다.

민족적 장소애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 NGO는 학술·의료 지원 등을 담당하며 사회·경제적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민족적 장소공포감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를 통해서는 신체적 위험도 무릅쓰는 비이성적 행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장소감과 대북 활동은 일견 중첩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19) 1998년 재미 한국계 학자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학해연구소(ISR)는 북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북한의 신경제 정책과 북미 화해 전략으로써 북한 에너지와 자원 개발, 북미 이산가족 문제와 미국의

< 표 6 > 장소감 유형에 따른 대북 활동 기관의 특징 및 주요활동

장소감·시선	주요 동기	기관명	특징 및 주요활동
장소 공포감	인권 개선	AEGIS, KCC, LiNK, PSALT, REAH, PSCORE, 미국 국립민주주의 기금, 방위포럼 재단,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협의회,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북한자유연합(NKFC), 주빌리 캠페인, 프리덤하우스, 휴먼라이츠워치, 한미자유민주연맹	북한 인권개선노력, 미국 내 북한인권법, 탈북고아입양 법안 추진,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 김정일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
장소애	교육, 학술 인도적 지원	미주 동북아문화교류협력재단, 통일선교대학, 경제실천연구회, 미주 두레마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미주본부, Good Neighbors USA,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 ¹⁹⁾ 노뚝돌(진보청년단체)	한국에 본부나 지부를 두는 경우, 북한 장애인 지원확대 사업(ISR), DEEP:DPRK Education & Exposure Program
	의료 지원, 선교	유진벨재단, VOWE, Penny선교회, SAM의료복지회, FreedomHouse, 사랑의 터키한미재단, 월드비전, 국제북한선교연합, 조선의 그리스도인 빛들, 머시코어, 국제적십자연맹, IFRC	평양에 외국인을 위한 교회를 짓고자 노력 (하베스트), 인도적 지원
타자적 시선	대학 인권 활동	American George Mason, USC, UCS, UCI, UCS, Stanford, Yale, THINK, ANKHR,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사진전, 퍼포먼스, 북한 다이어트
	인도적 지원 단체	기아대책, Petition UNHCR, The U.S.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Canary Moon Foundation, Peace Hospital Foundation Inc., Peace Action New York State	국제단체, 미국 주류 사회와 연계, 식량지원, 결핵약 등 지원
	미국 사회의 관점	Defence Forum, Rand Institute, 노틸러스연구소, 후버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 등	국가안보차원 접근
민족적 시선	장기적 관점	한인교회, Pax Koreana, 재미경제인연합회, 한인식품상연합회, 나선투자자문공사, Back Stage	대북투자, 관광 통일준비
	6·25 전쟁 사후 관련	샘소리,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재미이산가족상봉사업, 포로송환촉구 운동

자료: idealis(<http://www.idealists.org>); International Advocacy Group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안득기, 2008; 미국의 소리, 2009.1.16; RFA, 2012.6.29; RFA, 2009.10.13; 《오마이뉴스》, 2011.9.20; Shin and Lee, 2011.

전략 등의 주제를 다루어왔다(《연합뉴스》, 2001.6.2 참조).

6. 결론

본 연구는 인간주의 지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장소감 연구에서 나아가 장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재미교포의 대북 장소감과 행태의 연계를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장소심리학이란 특정한 장소가 갖는 장소성의 경합 그리고 개인의 인간생태환경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장소감의 고유성이 그 장소에 대한 행태와 다양하게 연계됨을 심리학적 방법론을 차용해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미교포의 대북지원 활동의 기저에는 북한에 대한 민족애와 악의 축이라는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 재미교포 대북 활동가의 북한과 관련한 직·간접적 경험은 과거 본인이 존재했던 한국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의 공간성과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미교포의 북한에 대한 장소감을 민족적·타자적 시각과 토포필리아·토포포비아적 시각을 두 축으로 민족적 장소애, 타자적 장소애, 민족적 장소공포감, 타자적 장소공포감, 총 4개의 대북 장소감으로 유형화했다. 이러한 각각의 장소감에 따라 북한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북한 지원에 대한 관심 정도와 북한 관광에 대한 찬반 의사가 상반되게 나타났다. 즉 민족적 장소애를 형성한 경우 북한 관광에 찬성하고 북한 지원에도 관심이 높으며 내집단인 재미교포의 대북 영향력도 높게 평가했다. 반대로 타자적 장소공포감의 경우 북한 관광에 대한 반대 의사가 높고 북한 지원에도 관심이 낮으며, 재미교포의 대북 영향력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양한 대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장소감과 행태의 연계성을 이해함으로써 상반된 대북 가치판단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장소감을 통해 대북 NGO 활동을 분석해보고자 했다. 민족적 장소애는 한국사회와 연계하는 통일 운동 및 대북 지원 활동과 연계되며, 타자적 장소애는 저개발국가로서 북한을 바라보며 교

육과 학술 교류 지원 및 의료지원 등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민족적 장소공포감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과 탈북자들의 참상을 미국 주류사회에 알리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인권 활동과 연계되며, 끝으로 타자적 장소공포감은 미국의 매파적 시선과 유사하게 북한을 세계 평화를 방해하는 국가로 간주해 압박하거나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는 활동과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할 때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의 독재, 핵문제와 같은 먼은 철저히 경계하고 그 체제 속에서 탄압받고 굶주리는 주민은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을 차가운 타자의 공간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채롭게 형성된 장소감과 그에 따른 행동양식이 펼쳐지고 있는 입체적인 장소로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북한 인식에 대한 첨예한 대립에 의해 발생하는 남남 갈등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보다 다양한 주(state)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포괄하지 못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장소감과 행태의 연계에 대한 장소심리학적 접근의 후속연구로서 행태지리학과 사회심리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밝혀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원고접수일: 2014년 11월 2일

심사완료일: 2014년 11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20일

최종원고접수일: 2014년 12월 5일

❖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American's Sense of Place Type and Characteristic of NGO's for North Korea: Place-Based Psychological Approach

Oh, In-Hye

This study 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lace-based psychology and aims at understanding the links of Korean-American's sense of place and their preferred activities in North Korea. The Korean-American contributed to the establishment of Pyongyang General Hospital,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ively engaged in human rights movement in North Korea, and preparing to propose the North Korea Orphans Adoption Law to the Congress. The sense of place toward North Korea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f Korean American's viewpoint of North Korea; ethnic topophilia, ethnic topophobia, other topophilia, other topophobia. This study tried to explain the NGO activities in view of their sense of place and intense experiences in North Korea. It is found that 'the ethnic topophilia group' concentrates on various exchange programs and official aid activities geared to unification, while 'the other topophilia group' is more for international aids and USA-North Korea exchanges seeing North Korea as a less-developed country or a country of extreme poverty, 'the ethnic topophobia group' helpi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n-official aids activities, and 'the other topophobia group' indifferent, sympathize with the hawkish attitude of the mainstream Americans supporting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Keywords: Sense of Place, Place-based Psychology, Topophilia, Topophobia, NGOs for North Korea

참고문헌

- 강상경. 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나남신서.
- 강연안. 2005. 『레비나스의 철학』. 문학과 지성사.
- 구동희. 2010. 「로컬리티 연구에 관한 방법론적 논쟁」. 《국토지리학회지》, 44(4), 509~523쪽.
- 권영락. 2005. 「장소기반 환경교육에서 장소감의 발달과 환경의식의 변화: '시화호 생명지킴이' 생태안내자 양성과정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수. 1992. 「북미 이산가족의 북한 고향방문 조사보고」. 《월간사회평론》, 92(10), 54~69쪽.
- 김병로. 2009. 「실용주의 대북정책 구상-대북지원과 인권이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1, 207~242쪽.
- 김용창. 2011. 「지역연구의 부활, 시대 공간 역사성의 조사와 기록, Museum Review」 (서울역사박물관), 2, 34~47쪽.
- 김유정. 2010. 「내 형제를 지키는 자: 교포 정체성 역학과 북한 인권운동」.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외. 2003. 「외교정책 신념체계와 국가 이미지에 관한 실증 사례 연구: 한국인들의 북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3), 151~174쪽.
- 김택환.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 이미지: 한국 언론과 북한 전문가들의 북한 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계간사상》, 9, 145~170쪽.
- 류우익. 1978. 「지리학에 있어서 공간개념의 문제에 대하여」. 《지리학논총》, 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55~65쪽.
- 리처드 니스벳, 최인철 역. 2004. 『생각의 지도』, 김영사(Richard E. Nisbett.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Brockman).
- 박명규 외. 2011. 「현상과 이미지-북한 이미지의 측정과 분석」. 《통일과 평화》, 3(1), 129~173쪽.
- 베노 베를렌, 안영진 역. 2003. 『사회공간론』, 한울아카데미(Werlen, B. 1987. *Sozialgeographie*, Paul Haupt Berne).
- 안득기. 2008. 「대북지원 NGO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12(2), 179~210쪽.
-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imited).
- 이은숙. 2004. 「해방 전 재미한인 이민문학에 나타난 고향의식과 그 지리적 의미」. 《문화역사지리》, 16(1), 183~196쪽.

- 이정만. 1998. 『도시문화지리학에 있어서 ‘문화’와 ‘환경’의 개념』. 《대한지리학회지》, 33, Special Edition, 677~684쪽.
- 이-푸 투안, 구동화·심승희 역. 2005. 『공간과 장소』. 대원(Tuan, Yi-Fu.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이-푸 투안, 이옥진 역. 2011. 『토포필리아—환경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로컬리티 번역총서 L6(Tuan, Yi-Fu. 1974. *Topophilia: A Study of Environmental Perception, Attitudes, and Values*. Prentice Hall Inc.).
- 조아라. 2007. 『문화관광지의 지역성 재구성 과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종오. 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이해』. 홍익출판사.
- 폴트루니에, 정동섭·박영민 역. 1995. 『모험으로 사는 인생』. IVP(Tournier, P. 1965. *L'aventure de la vie*. Delachaux et Niestle, Neuchated et Paris).
- 허근. 1994. 『재미교포의 대북경제교류, 현황과 의미: 시장경제체제 접목시키는 인적 자원』. 《통일한국》, 5, 42~45쪽.
- 홍기선 외. 1980. 『재미교포의 대한 안보관에 대한 연구—나성지역에서의 설문조사』.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83~106쪽.
- Auburn, T. & R. Barnes. 2006. "Producing Place: A Neo-Schutzian Perspective on the 'Psychology of Pla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6, pp. 38~50.
- Bardo, J. W. 1976. "Dimensions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a British New Town." *Multivariate Experimental Clinical Research*, 2, pp. 129~134.
- Billig, M. 2006. "Is My Home My Castle? Place Attachment, Risk Perception, and Religious Faith." *Environment and Behavior*, 38(2), pp. 248~265.
- Butz, D. and Eyles. 1997. "Reconceptualizing Senses of Place: Social Relations, Ideology and Ecology." *Geografiska Annaler*, 79B(1), pp. 1~25.
- Canter, D. V. 1975. *Environmental Interaction: Psychological Approaches to Our Physical Surroundings*. Surrey University Press.
- Canter, D. V. 1977. *The Psychology of Place*. Palgrave Macmillan.
- Cohen, A. P. 1982. *Belonging: Identity and Social Organisation in British Rural Culture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Cottrell, C. A. and S. L. Neuberg. 2005. "Different Emotional Reactions to Different Groups: A Sociofunctional Threat-Based Approach to 'Prejudice', 2005."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pp. 770~789.
- De Young, R. 1999. "Environmental Psychology." in D. E., Alexander & R. W. Fairbridge (Eds.). *Encyclopedia of Environmental Science*. Retrieved from <http://www-personal.umich.edu/~rdeyoung/envtpsych.html>.
- Foucault, M. 1986. "Of Other Spaces." *Diacritics*, 16, pp. 22~27.

- Giuliani, M. V. and R. Feldman. 1993. "Place Attachment in a Developmental and Cultural contex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3, pp. 267~274.
- Golledge, R. G. and R. J. Stimson. 1997. *Spatial Behavior-A Geographic Perspective*. The Guilford Press: New York. & Unwin.
- Hall, E. T. 1966. *The Hidden Dimension*. Garden City, N.Y.
- Hewitt, J. P. 1991. *Self and Society: A Symbolic Interactionist Social Psychology* (5th ed.). Boston: Allyn & Bacon.
- Jorgensen, B. S. and R. C. Stedman. 2001. "Sense of Place as an attitude: Lakeshore owners Attitudes Toward their Proper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 pp. 233~248.
- Korpela, K. M. and M. Ylen. 2007. "Perceived Health is Associated with Natural Favourite Places in the Vicinity." *Health & Place*, 13(1), pp. 138~151.
- Lalli, M. 1992. "Urban-related identity: Theory, Measurement, and Empirical Find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12(4), pp. 285~303.
- Manzo, L. C. 2003. "Beyond House and Haven: Toward a Revisioning of Emotional Relationship with Plac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3, pp. 47~61.
- Manzo, L. C. and D. D. Perkins. 2006. "Finding Common Ground: The Importance of Place Attachment to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20(4), pp. 335~350.
- Marcus, C. C. 1995. "House as a Mirror of Self: Explore the Deeper Meaning of Home." <http://architecture.about.com/od/productreviews/fr/housemirror.htm>.
- Marcus, C. C. and M. Barnes. 1999. *Healing Gardens: Therapeutic Benefits and Design Recommendations*.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Matz, D. C. and W. Wood. 2005. "Cognitive Dissonance in Groups: The Consequences of Disagre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pp. 22~37.
- Moore, R. L. and A. R. Graefe. 1994. "Attachments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s*, 16, pp. 17~31.
- Nash, C. 1998. "Mapping Emo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6(1), pp. 1~10.
- Passi, A. 1986.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s: A Theoretical Framework of Understanding the Emergence of Regions and the Constitution of Regional Identity." *Femina*, 164(1), pp. 105~146.
- Piaget, J. 1953. *Logic and Psycholog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Proshansky, H. M. Fabian, A. K. and R. Kaminoff. 1983. "Place-Identity: Physical World Socialization of the Self."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1(1), pp. 57~83.
- Sarason, S. B.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Francisco: Jossey-Bass.

- Semken, S. and C. B. Freeman. "Sense of Place in the Practice and Assessment of Place-Based Science Teaching." *Science Education*, 92, pp. 1042~1057.
- Shin, G. W. and K. J. Lee. 2011. *U.S. - DPRK Educational Exchanges - Assessment and Future Strategy*, Walter H.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 Books, Stanford University.
- Soja, E. 1995. "Postmodern Urbanisation: The Six Restructurings of Los angeles." in K. Gibson and S. Watson(eds.). *Postmodern Cities and Spaces*, Cambridge, pp. 125~137.
- Stedman, R. C. 2002.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Place - Predicting Behavior from Place-Based Cognitions, Attitude, and Identity." *Environment and Behavior*, 34(5), pp. 561~581.
- Tuan, Yi-Fu, 1976. "Humanistic Geograph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66, pp. 206~276.
- Ulrich, R. S. 1992. "Effects of Interior Design on Wellness: Theory and Recent Scientific Research." *Journal of Healthcare Design*, 3, pp. 97~109.